

Joy News

조이장애선교회 뉴스레터

“가을은 두 번째 봄
모든 나뭇잎이 꽃이 되는 계절이다.”

— 카뮈(Albert Camus)—

Joy Research and Service Center for the Disabled 714-525-0569 joycenter@hotmail.com



알리는 말씀

1. 조이우간다 특수교육 통합학교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습니다. 지금은 1단계로 기획/설계, 기금모금 단계에 있습니다.
2. 특히 교사로 헌신하실 분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 형태의 선교사 지망생도 원합니다.

장애 관련 소식



자폐 스펙트럼을 가진 가드너(32)와 피슈그룬트(29)가 아프리카 최고봉 킬리만자로 등반에 도전했다. 두 사람은 발달·사회적 장애 성인을 지원하는 Chapel Haven Schleifer Center 소속으로, 주립공원 검기 훈련과 요가·호흡법을 통해 여정을 준비했다. 이들의 도전은 비영리단체 Accessibility Accelerator가 주최한 프로젝트로, 시각·청각 장애인, 의족을 착용한 참가자 등 총 500여 명이 함께했다. 피슈그룬트는 고도 적응 문제로 3일째 하산했으나, 가드너는 7일간의 등정 끝에 첫 정상에 올랐다. 그는 “하산길이 더 힘들었지만 끝내 완주했다”



타이레놀과 자폐증 논란

트럼프 대통령은 임신 중 타이레놀(아세트아미노펜)의 사용이 자폐증 위험 증가와 연관이 있다고 주장하며, 임신부들이 해당 약 복용을 자제하라는 권고를 했습니다. 또한, 백악관에서는 타이레놀과 자폐증 연관성 주장에 강화하면서, FDA에게 임신부 대상 아세트아미노펜 사용에 대해 용법 라벨 변경을 고려하라는 지침을 내렸고, 일부 의사들에게는 “임신 시 최소량·최단 기간만 사용하라”고 권고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Mount Sinai의 최근 연구는 임신 중 아세트아미노펜 노출이 자폐증 및 ADHD 위험을 약간 높일 수 있다는 연관성을 보여준다고 발표했지만, 저자들도 인과성을 확정 짓지는 않았습니다.

미국 산부인과 학회(ACOG)는 “지난 수십 년간의 연구에서 아세트아미노펜이 임신 중에 신경발달 장애를 일으킨다는 확실한 연구는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WHO(세계보건기구)도 “현재 아세트아미노펜(타이레놀 등)의 사용과 자폐증 사이를 확증하는 과학적 증거는 없다”고 선언했습니다.

또 많은 전문가들은 교란 요인(confounders)의 가능성을 지적합니다. 예를 들어, 임신부가 통증이나 열이 있어 타이레놀을 복용한 경우 그 기저의 질병이 아기의 발달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가족력이나 유전적 요인이 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기도제목나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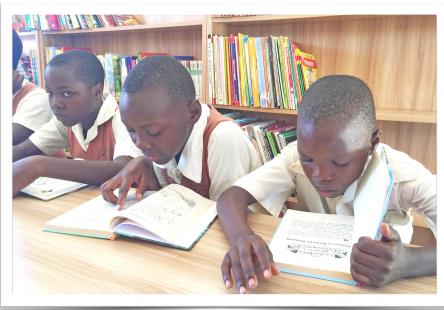


1. 조이 우간다 특수교육 학교 건립을 위해/ 직업학교 증설을 위해
2. 교사 및 선교사로 헌신하실 분을 위해
3. 조이우간다/Ndejje University 대학원 과정 특수교육 교사 양성과정을 위해
4. 재원 충당과 후원자를 위해

후원방법

1. Check로 보내실 경우:
Pay to the order of "Joy Center, Inc.". Memo: _____
2. Zelle, Paypal, Venmo의 경우:
joycenter@hotmail.com

We appreciate your gift of love in support of Joy Center, which is a non-profit organization 501(c)(3).



우간다 특수 통합학교 설립 논의

조이우간다 통합학교 설립의 비전을 가지고 파트너십을 논의한 조이선교회와 Camp of God 측의 조인트미팅이 9월 22일부터 25일까지 본 선교회 이사 되시는 조은미교수댁에서 있었습니다. 이곳에 세워질 학교는 아프리카 최초로 다운신드롬·지적장애 학생과 일반 학생이 함께 배우는 통합학교입니다. 현재 거론되고 있는 학교 후보지로는 우간다 음피지 Mpigi (Butambala) 지역으로서 인구의 35% 이상이 무슬림으로 구성된 지역입니다.

우간다에 특수교육을 위한 통합학교가 절실히 필요한 이유는 첫째, 장애 아동의 초등학교 참여율이 9% 미만에 머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장애아동이 초등교육을 받는다 하더라도 중등교육이나 전환교육 나아가 성인 교육의 기회는 거의 전무한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이로 인해 다수의 아이들은 배움의 길에서 배제되고 사회적 고립에 처해 있습니다.

우간다에서는 여전히 장애아를 천벌이나 조상의 진노로 여기며, 심지어는 희생 제물로 삼는 비극까지 존재합니다. Joy Uganda Inclusive School은 이러한 어둠을 걷어내고, 장애를 가진 아이들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존엄하게 살아갈 수 있는 희망의 길을 열 것입니다.

🙏 기도로 동참해 주세요

❤️ 후원과 파트너십으로 참여해 주세요
(건축기금, 장학기금, 발전기금)

🌿 선교 헌신으로 함께해 주세요
(특수교사, 일반교사, 각종 치료사, 직업교육)

“하나님의 형상은 우리가 서로를 대하는 방식 속에서 드러난다.”
-디트리히 본회퍼(Dietrich Bonhoeffer)-

